

주요 신흥국 동향 모니터링

중동·아프리카 (2014.1분기)

- 아랍에미리트, 이란, 남아공, 나이지리아 -



2014년 4월 21일

작성 선임조사역 오경일 (3779-5720)
조 사 역 임민교 (3779-5727)
확인: 실 장 김주영 (3779-5702)

oki1122@koreaexim.go.kr
ymg@koreaexim.go.kr
jykim@koreaexim.go.kr

< 목 차 >

I. 국별 주요 동향	1
II. 국별 지급능력 분석	2
1. 아랍에미리트	2
2. 이 란	4
3. 남아공	6
4. 나이지리아	8
III. 국별 주요 경제지표 현황	10

I. 국별 주요 동향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채무만기 연장 성공, 부동산 과열 억제

- 아부다비 재무부와 UAE 중앙은행은 지난 3월 두바이 정부에 대한 채권 200억 달러의 만기 5년 연장에 합의하였음.
- 두바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세율을 2%에서 4%로 인상하였음.

□ (이란) 핵문제 실무협상 진전 기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의 비협조 가능성 대두

- 이란측은 지난 3월 핵협상 후속 실무조치 협상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Arak 중수로 관련 의혹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그러나 협상 참여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과 EU측 대응에 반발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장애물이 많다는 분석임.

□ (남아공) 백금 광산의 파업 재개, 전력난의 계속으로 산업생산 손실 초래

- 지난 1월 백금 광산의 파업이 재개되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업 전반에 걸친 파업 도미노 현상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음.
- 지난 3월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경제 중심지인 요하네스버그에 강제 절전과 지역별 순환정전을 시행하는 등 전력생산 인프라의 미비로 인한 전력난이 계속되어 산업생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송유관 원유 절도로 원유수출 중단, 5월 원유수출량 위축 우려

- Shell사는 지난 3월 현지인들의 송유관 원유 절도로 원유 유출이 발생하자 Forcados 유전의 원유 수출을 '불가항력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하였음.
-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나이지리아의 5월 원유수출량이 2009년 이후 최저치인 일일 153만 배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II. 국별 지급능력 분석

1. 아랍에미리트

(1) 경제구조

□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석유의존적 경제

- UAE는 978억 배럴의 원유와 6.1조 m³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각 세계 7위 규모)을 보유한 에너지자원 부국임. 이에 따라 GDP와 수출의 각 40%, 재정수입의 82%를 점유하는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 및 국제유가 변동에 취약함.

□ 석유 부문은 아부다비, 비석유 부문은 두바이로 산업구조 이원화

- 석유매장량의 95%가 7개 토후국 중 아부다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두바이는 외국 투자자금과 차입금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금융, 무역, 관광 중심지로 급성장하고 있음.
- 다만, 두바이 개발을 주도한 국영기업 Dubaiworld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과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인해 2010년 9월 총 249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에 이르렀음.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경상수지 흑자 축소에도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으로 지속 증가

- **(재정수지)** 석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으로 재정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 사회복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2014년에도 이들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지속으로 동 비율이 4.2%로 (전년 5.2%) 낮아질 전망이다.
- **(경상수지)** 석유수출로 인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인프라 개발 관련 기술 도입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2014년에는 이러한 추세 외에 유가하락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동 비율이 12.1%로 (전년 14.9%) 낮아질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FDI 유입으로 2013년 말 외환보유액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67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도 FDI 유입에 힘입어 723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 및 정책대응

□ 부동산 가격 급등, 과중한 부채 등 두바이 경제 관련 우려 잔존

- 두바이의 부동산 가격은 2008~09년 두바이 경제위기 당시 30~40% 급락하였고, 최근에는 30% 이상 급등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두바이는 2017년까지 600억 달러(전체 국영기업 부채의 65%)의 채무를 상환해야 함. 아부다비 재무부와 UAE 중앙은행은 지난 3월 두 기관이 보유 중인 두바이 정부에 대한 금년 중 만기도래 채권 200억 달러의 만기 5년 연장에 합의하였음.
 - 아부다비는 두바이의 재정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식시장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검토 중임.

□ 중계무역기지, 금융 허브, 관광 부문 등으로 산업 다각화 추진

- UAE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건립, 재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두바이 자유무역지대 개설 등 중계무역기지와 금융 허브 구축을 위한 산업 다각화 정책을 시행 중임.
- 이의 일환으로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두바이 신공항 개장, 항공편 증설 외에도 6,000억 달러 규모의 테마파크 개장(2014년)과 EXPO 개최(2020년) 준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의 적극 시행

- 현재 UAE 전체 근로자의 80%가 외국인 근로자이며, 이중 민간 부문에서는 98%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금융·재무 교육기관 설립 확대,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자국민 고용 확대에 나서고 있음.

(4) 분석의견

- 아부다비의 원유 수출과 두바이의 금융·관광 부문 수입을 통해 대규모 재정·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2011년 이후 4%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향후에도 원유 생산량 증대와 금융·무역 부문의 성장을 바탕으로 현재 수준의 경제성장세 유지가 예상됨.
- 외부차입으로 금융·관광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두바이의 채무상환과 부동산시장 과열이 우려됨. 그러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외환보유액과 국부펀드(8,100억 달러) 외에 아부다비 정부의 지원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2. 이 란

(1) 경제구조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이란은 1,570억 배럴의 원유(세계 4위)와 33.6조 m³의 천연가스(세계 1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부국임.

□ 핵개발로 인한 경제제재로 석유 부문 중심의 경제구조 지속

-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40%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제성장도 원유와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등락과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오일머니를 활용하여 석유화학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 육성 등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해 성과는 미미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경상수지는 개선되나 FDI 유입 제한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 **(재정수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에 따른 원유수출 감소 등으로 2012년부터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다만, 2014년에는 핵협상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로 인한 원유수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7%로 (전년 2.4%) 개선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경제제재로 인한 원유수출 감소로 2013년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됨에 따라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됨. 2014년에는 경제제재 완화로 원유수출 증가가 기대되지만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0.9%로 (전년 1.1%) 약간 개선되는 데 그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원유수출 감소의 여파로 외환보유액이 2012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2014년에도 국제유가 하락과 경제제재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입 제한의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634억 달러로 (전년 657억 달러) 소폭 감소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 및 정책대응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원유생산은 침체된 반면, 정유능력은 증대

-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0년 408.0만 배럴에서 2012년 336.7만 배럴로 감소하고 있음.
 - 프로젝트 관리 미흡, 인적자원의 부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이 원유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유시설 부족으로 휘발유를 대량 수입하였으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를 계기로 정유설비 확장을 통해 일일 정유능력을 2012년 189.2만 배럴로 (2007년 177.2만 배럴) 확대하였음.

□ 고도성장과 재정수입의 원유의존도 축소 등을 목표로 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의 효과는 경제제재로 아직 불투명

- 2010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10-15년)은 연 평균 8%의 경제성장률, 7% 실업률, 외국인투자 유치와 무역 확대, 재정수입의 원유의존도 축소 등을 목표로 함.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임.
 - 외국인투자 유치의 부진은 외국기업의 경제적 지배를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외에도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이란 경제제재 지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4) 분석의견

- 핵협상 합의 이행에 따른 6개월간의 제재완화로 원유수출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5%로 (전년 -3.0%) 플러스 전환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 수입액의 10.7개월분으로 (IMF 권고수준은 최소 3개월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총외채잔액 규모가 GDP의 3.7% 수준이고, 외환보유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잔액이 외환보유액의 10.4%로 안정적임. 또한 D.S.R도 3.0%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제제재 완화가 지속될 경우, 원유수출 증대 등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흑자 전환되어 대외지급능력도 개선될 전망이다.

3. 남아공

(1) 경제구조

□ 금, 백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제조업,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보유

- 금, 백금, 크롬, 철광석, 망간 등 대부분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광업 부문이 GDP의 8%와 총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 아프리카 전체 GDP의 약 27%를 점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1의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방위산업 등 상대적으로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외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의 허브 역할 담당

- 해상 요충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풍부한 노동력과 다변화된 산업구조의 보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양호한 투자여건으로 선진국의 아프리카 진출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금융산업이 GDP의 2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금융 인프라가 발달한 점도 선진국의 아프리카 진출 기지 역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경상수지 소폭 개선과 함께 외환보유액도 증가 예상

- **(재정수지)** 세수 감소, 인프라 확충, 경기부양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다만, 2014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계속됨에도 경제성장을 상승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3%로 (전년 4.8%)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경상수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2012년 이후 상품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광산 개발, 인프라 건설 등으로 서비스수지도 적자가 지속되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다만, 2014년에는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6.2%로 (전년 6.6%)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2013년에는 파업 악화에도 불구하고 FDI 유입의 증가로 외환보유액이 419억 달러(전년 대비 1.8%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무역수지 개선으로 437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 및 정책대응

□ 임금인상 요구의 대규모 파업 빈발과 전력난 악화가 경제성장에 걸림돌

- 2012년 백금 광산에서 대폭적 임금인상 요구로 시작된 파업의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으로 인한 투자환경 악화가 2013년 신용등급 강등과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함.
 - 2014년 들어서도 백금 광산의 파업이 재개되어 지난해 파업 도미노 현상의 재연 가능성이 있음.
- 전력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제한송전을 실시하는 등 전력난이 계속되어 산업생산에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음.

□ 에너지·수도·통신·교통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2012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에너지, 수도, 통신, 교통 등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과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3월부터 제2차 인프라 건설계획을 통해 2014년까지 총 1,114억 달러 규모의 43개 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나태함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성과는 미흡함.

(4) 분석의견

-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공공부채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다만, 공공부채의 대부분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어 공공부채 증가가 외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은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차별화됨.
- 2014년에는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제성장이 나아질 전망이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흑자 전환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는 적자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 총외채잔액은 GDP의 50% 미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외환보유액이 단기적 지불수요(단기외채 + 3개월분 수입액)의 71% 수준으로 취약성이 높아 유동성위기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

4. 나이지리아

(1) 경제구조

□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 부문의 성장이 위축된 반면, 비석유 부문의 성장 가속화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 제1위의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재정수입과 수출의 각각 70%와 95%를 차지하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임. 그러나 최근의 국제유가 하락과 석유 주수입국인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등의 영향으로 현재 석유산업은 현상유지 수준임.
- 통신, 건설, 관광, 부동산, 무역, 제조업 등 비석유 부문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의 30%를 차지하는 농업도 꾸준히 성장하여 6%대의 경제성장을 견인함.

□ 아프리카 최대의 인수로 내수시장의 성장 기대

- 나이지리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7억 명으로 아프리카 최대이자 세계 7위임. 고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상승, 중산층 증가, 물가상승률 하락 등으로 구매력 확대에 따른 내수시장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됨.

(2) 주요 경제지표

□ 재정수지 적자 지속, 경상수지 흑자에도 외채원리금 상환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은 감소

- **(재정수지)** 재정수입의 석유 부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한편, 인프라 개발, 공공부문 임금 인상,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지출로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2014년에는 2015년 대선에 따른 선심성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1%로 (전년 2.9%)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원유 수출에 따른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014년에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원자재 수입과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품 소비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8.1%로 (전년 9.8%) 다소 하락할 전망이다.
- **(외환보유액)**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FDI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해 왔음. 그러나 2014년에는 외채원리금 상환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FDI 유입 감소 등으로 358억 달러로 (전년 436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

(3) 경제 현안 및 정책대응

□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와 유전지대 반군의 테러 공격 지속

- 동국의 북부 지역에서는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가 정부군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남부 Niger Delta 지역(유전지대)에서는 반군이 정부군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이로 인해 원유 생산 차질과 외국인투자 유치 장애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정부의 사면 프로그램 실시로 Niger Delta 반군에 대해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부정부패 척결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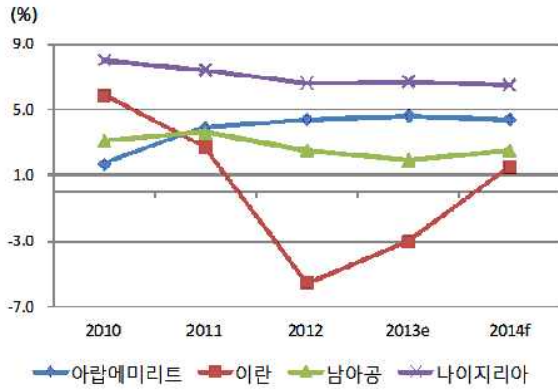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148개국 중 129위 수준으로 전력공급(141위), 도로(127위), 항만(112위), 공항(108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전력공급 능력은 4,500MW로 우리나라의 약 5% 수준이며, 산업계 대부분이 자가발전에 의존함에 따라 높은 발전단가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77개국 중 144위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는 2010년 발표한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통한 인프라 개발 추진 등 2020년까지 세계 20위 내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임.

(4)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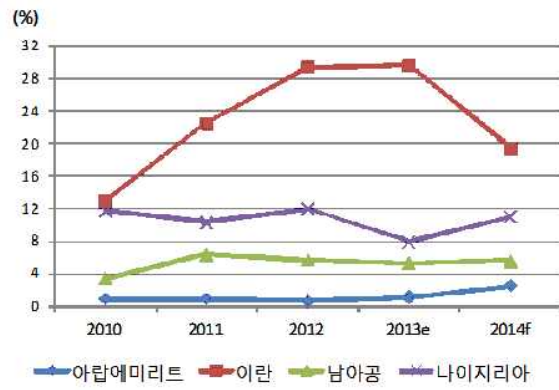
- 석유의존적 산업구조임에도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6%대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인프라 확충,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유 수출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FDI 유입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13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GDP 대비 12.3%, D.S.R.은 1% 미만을 유지하여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상품수지 흑자 증가와 FDI 유입 등으로 동국의 대외지급능력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Ⅲ. 국별 주요 경제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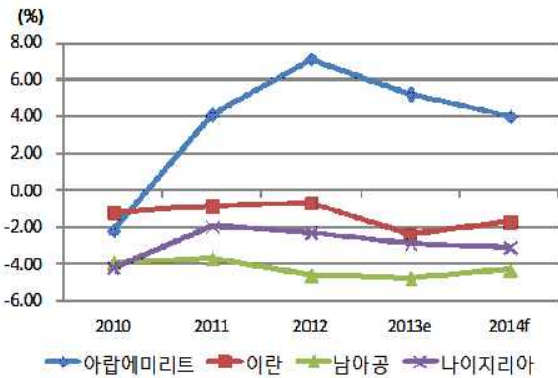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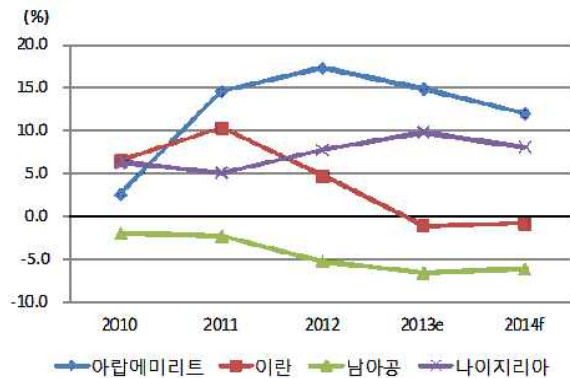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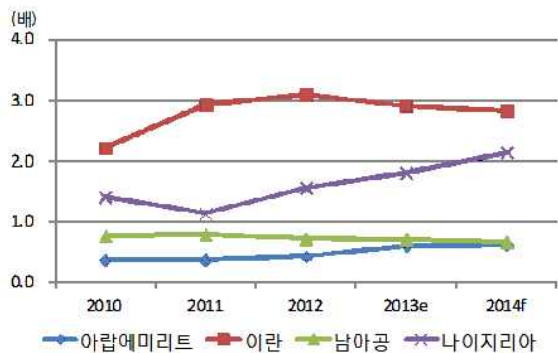
재정수지/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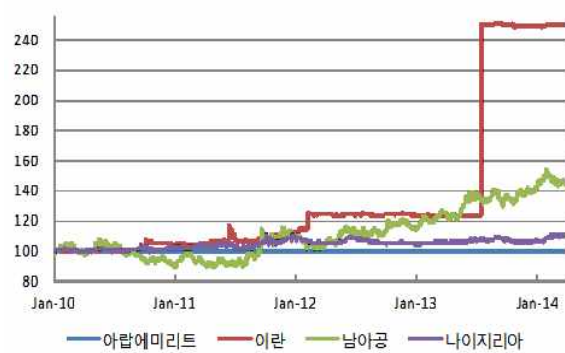
경상수지/GDP



외환보유액¹⁾



환율(미 달러화 대비)²⁾



주 1) 외환보유액/(단기외채+수입금액의 3개월분)

2) 2010년 초 환율 = 100

자료: IMF, EIU, IIF, OECD.